



서귀포해경뉴스레터



안전환경

01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02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해상수난구호 대책 회의 개최

03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점검 실시

04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가스유출로 쓰러진 선원 2명 구조

05 서귀포 강정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카약동호인 5명 구조

06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상선 응급환자 긴급이송



내부역량

07 「수사 경찰관 인권교육」 실시



안전환경 분야

01

서귀포해경서장,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구조대응태세 점검

- 도기범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어선 화재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19일~20일 최일선 부서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구조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 이날 도기범 서장은 화순항에 정박 중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 동절기 화재선박 등 각종 사고 시 구조대응태세, ▲ 소화장비 등 안전장비 관리실태, ▲ 각종 긴급상황 대비 자체 교육·훈련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02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해상수난구호 대책회의 개최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선화재 사고 등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11월 11일 「지역 해상수난구호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서귀포해경, 서귀포시청, 수협 등 18개 기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 등 수난구호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년간 겨울철 해양사고 분석 및 내용 공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대응을 위한 각 기관별 발표, 유관기관 협조 사항 및 동절기 대비 사고예방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03

겨울철 해양사고 대비 어선 안전점검 실시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어선 화재 등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서귀포지역 내 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최근 3년간 서귀포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756척 중 겨울철인 11월~2월에 어선 191척(25%)이 발생하였으며, 사고원인은 기관손상(66척, 25%), 부유물 감김(44척, 17%)으로 대부분 정비 불량·운항부주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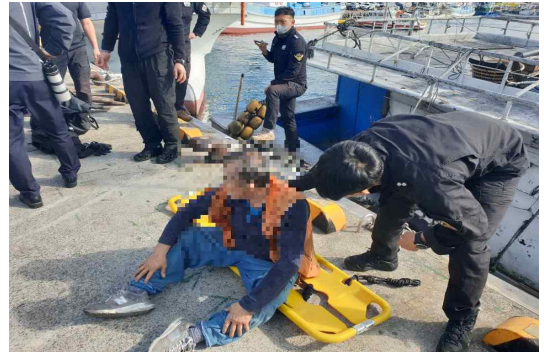
- 이에 따라, 서귀포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과 함께 어선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1월 3일부터 서귀포지역 어선 20척에 대해 구명뗏목·소화장비 등의 안전·구조장비, 발전기·엔진 점검 및 선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선주·선장을 대상으로 최근 어선 화재사고 등의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기상불량 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항 교육도 실시하였다.

04

서귀포항 내 어선에서 가스유출로 쓰러진 선원 2명 구조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35분경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어선 S호(29톤, 서귀포, 연승) 선원실에 가스 유출로 질식되어 쓰러진 A씨(남, 62세)와 베트남인 B씨(남)를 구조하였다고 밝혔다.



- 서귀포해경은 24일 오전 11시 26분경 서귀포항내 정박 중인 어선 S호에 가스유출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서귀포파출소 경찰관을 현장에 급파하였다.
-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경찰관과 구조대 경찰관은 선원실에 진입해 가스에 질식되어 쓰러진 A씨와 B씨를 11시 35분경 선원실 밖으로 구조하였으며, 대기 중인 119에 인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였다.

05

서귀포 강정 인근 해상에 표류하던 카약동호인 5명 구조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8일 오후 4시 7분경 제주 민군복합항 남쪽 약2.2km 해상에서 강한바람과 너울에 표류하던 카약 동호인 A씨(남, 49세, 서귀포) 등 5명을 구조하였다.
- 카약동호인 10명은 8일 오전 11시경 카약 10대를 타고 서귀포 예레포구에서 출발해 수상레저활동 중 오후 3시 14분경 제주 민군복합항 인근 해상에서 강한바람과 너울에 카약 2대가 전복되어 해경에 신고를 하였다.



- 현장에 도착한 서귀포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구조대에서 해상에 표류하고 있는 카약동호인 A씨 등 4명을 구조하고,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카약동호인 1명을 구조하였다.
- 구조된 동호인 5명 모두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나머지 5명은 자력으로 육상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06

차귀도 해상에서 발생한 상선 응급환자 긴급이송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1월 21일 밤 10시 45분경 차귀도 남서쪽 약 80km해상에서 상선 A호(23,322톤, 파나마)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중국인 선원 B씨(33세)를 긴급 이송하였다.
- 화물선 A호는 21일 오후 5시 17분경 기관실 작업 중 미끄러져 날카로운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부상을 당했다고 해경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서귀포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8시 20분경 응급환자 선원 B씨를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워 응급조치를 하며 긴급이송해 밤 10시 45분경 화순항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하였다.
- 응급환자 선원 B씨는 이송 당시 머리에 출혈이 있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역량 분야

07 「수사 경찰관 인권교육」 실시

-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피의자·피해자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수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국가인권위 위촉 인권강사를 초빙해 수사경찰관 20여명을 대상으로 “경찰관 인권 감수성 함양”을 주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등 사건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 설명, ▲해양종사자 및 노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해와 인권 보호방안, ▲체포,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절차에서 놓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 서귀포해경은 최근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만큼 해양경찰관의 인권의식 함양 및 수사 전문성 강화로 인권침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